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12년 6월 2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 이용환 지역산업과장(2110-5601), 이동철 사무관(2110-5596)		

한국의 지역산업 정책, 개도국에서 벤치마킹한다

– OECD, 「Industrial Policy and Territorial Development: Lessons from Korea」 발간 –
– 한국의 지역산업 육성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 –

□ OECD는 6.19일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된 "산업정책과 지역발전: 한국으로부터의 교훈" 발간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지역산업육성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개도국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세미나 개요 >

① 일시 및 장소: 6.19(화) 09:00~13:15, 파리 OECD본부
② 주요 참석자: M. Pezzini OECD 개발협력센터 소장, 허경욱 OECD대사, P. Zuber 폴란드 지역발전부 과장, 이용환 지경부 지역산업과장 등 30여명
③ 주제: 한국 지역산업 정책 사례발표 및 개도국의 지역발전 정책방향 토의

□ OECD는 한국의 지역발전 경험으로부터 개도국을 위한 시사점으로 ① 지역발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 및 ② 클러스터 육성 관점에서의 지역산업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 OECD는 ① 한국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및 광특회계 도입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 ② 또한 대표적 지역산업 정책의 예시로서 지역간 연계협력 및 규모의 경제를 위한 광역경제권 사업,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 육성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 더불어 OECD는 한국 정부가 '98년부터 산업정책 및 혁신정책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을 수행해 왔으며,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왔다고 평가하였다.

○ 한국의 지역발전 정책은 낙후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지역의 경쟁력 제고 차원으로 성공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으며,

○ 특히 이명박 정부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을 통해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의 소규모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규모의 경제에 기반하여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 또한 한국만의 독특한 지역산업 정책 수행기관으로, 테크노파크의 다양한 역할 및 지원성과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 세미나에 참여한 이용환 지경부 지역산업과장은 "그간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전반에 대해서는 국제적 관심이 매우 높았으나, 지역발전 경험과 성과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의 지역발전 정책을 세계에 적극 홍보하고, 우리의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폴란드와 베트남 정부 관계자 및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한국의 지역발전 경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고 1 **OECD, 「산업정책 및 지역발전: 한국으로부터의 교훈」 주요 내용**

* Industrial Policy and Territorial Development: Lessons from Korea

(1장) 한국의 성공적 Catch-up 전략과 지역간 불균형 성장

○ 정부 주도의 선택과 집중에 따른 불균형 압축성장 과정을 소개

○ 특히 1970~80년대 중화학공업 및 90년대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R&D 및 인력양성 정책을 집중 소개

* (70년대) 출연연 주도의 외국기술 도입, 실업계고 등 직업교육 강화
(80년대) 정부 지원 R&D사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민간 R&D 촉진제도 도입, 공과대학 확대를 통한 이공계인력 확충
(90년대) 대기업 중심 R&D, 대학원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수준의 대학 육성

○ 지역간 불균형 성장 모습을 시기별·분야별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을 설명

【지역간 불균형 성장 모습】

▪ (시기별) ① 70~80년대 중화학공업 발전에 따라, 수도권에는 기업 본사가, 동남권(임해산단)에는 기업들의 생산기능이 집중

② 90년대 첨단 IT산업 발전에 따라, 수도권은 첨단산업에, 지방은 일반산업에 집중하는 새로운 공간 분업의 특성 대두

③ 00년대 이후,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은 지식집약적 사업서비스에 특화하고, 첨단산업의 생산기능이 경기도 및 충청권까지 확대

▪ (분야별) ① 교통 및 ICT 인프라, 의료서비스 측면에서는 불균형이 적은편

② R&D 및 창업여건, 대학교육 측면에서는 불균형이 많은편

(2장) 한국의 지역발전 정책

○ ('98~'02년: 국민의 정부) 정권교체에 따라 형평성에 대한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여 4개 시도에 대해 최초의 지역발전 정책을 실시

* 대구 섬유산업, 부산 신발산업, 경남 기계산업, 광주 光산업을 집중 육성

○ ('03~'07년: 참여 정부) 지역간 균형발전을 국정운영 핵심목표로 결정, 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범부처 차원의 균형발전위원회를 운영

- 또한 기존의 노동·자본의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벗어나, 지역에서도 혁신주도형 성장이 가능해지도록, 지역혁신시스템(RIS)을 구축

○ ('08~'12년: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의 목표를 그간의 획일적 형평성에서 벗어나,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전환

- 4+α 초광역권, 5+2 광역권,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의 3차원 지역발전 추진체계를 정립

* 4+α 초광역권: 3개 해안권, 접경지역 + 내륙 초광역개발권
* 5+2 광역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 강원권, 제주권

- 특히 5+2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해 ① 광역권별 2개 선도산업을 선정·육성(지경부), ② 선도산업별 1~2개 대학을 선정·인재양성(교과부) ③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30개 프로젝트 지원(국토부)을 실시

(3장) 한국의 지역발전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 지역발전이 우선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어젠다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수

- 한국 정부의 범부처적인 지역발전위원회 구성, 특별회계 운영,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참고할 필요

○ 또한 효과적인 지역산업정책을 수립할 필요

-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과 유사하게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선 새로운 경제적 구역(Economic Region)을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 지역주도의 정책수립 등이 필요

○ 한국의 지역발전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고, 지역의 인재유치 정책을 활성화할 필요

참고 2 발간 세미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2. 6. 19(화) 09:00, 파리 OECD 본부

시 간	주요 내용	참여 인사
09:00~09:30	환영사 및 축사	M. Pezzini (OECD 개발센터 소장) 허경욱 (OECD 한국 대사)
1부. '한국의 산업정책 및 지역발전 경험' 공유를 위한 정책 토론회		
09:30~10:15	보고서 발표	M. Pezzini (OECD 개발센터 소장)
10:15~11:00	패널 토론	이용환 (지경부 지역산업과장) R. Jones (OECD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P. Zuber (폴란드 지역발전부 과장) M. Landabaso (European Commission) 베트남 사회과학연구원 (참석자 미정)
2부. 개도국의 효율적인 지역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회의		
11:30~13:00	브레인스토밍 회의 (주재: M. Pezzini)	M. Pezzini (OECD 개발센터 소장) 이용환 (지경부 지역산업과장) R. Jones (OECD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P. Zuber (폴란드 지역발전부 과장) M. Landabaso (European Commission) 베트남 사회과학연구원 (참석자 미정)
13:00~13:15	폐회사	M. Pezzini (OECD 개발센터 소장)